

남·북한 경제공동체 청사진 뭉개

FTA 또는 경제협력약정 될 듯

“민족 내부거래 국제적 인정 관심”...北 반응 관건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정상 회담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천명함에 따라 미래 남북경협을 이끌어갈 제도적 청사진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현재 민족 내부 거래 형태로 추진되는 무관세 거래를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는 남북간 특수관계와 이질성을 반영한 잠정적 FTA로서,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와 체제적 이질성을 고려해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갖는 잠정적 수준에서 출발해 점차 개방의 폭과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남북경협의 질적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도 꾀한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방북 열흘 앞...盧·DJ 회동 ‘신중’

靑 “정치적 오해 부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조언을 받는 방안이 청와대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고 있다.



정상회담추진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김민복 국정원장, 백종천 안보실장(오른쪽부터) 등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 회담 준비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의 측근들이 구속되면서 틀어졌던 노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측의 관계가 ‘복원’되는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적지 않은 터이다.

최호선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회동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지만, 아직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6자 북핵 불능화 협의 착수

비핵화회의 개막...남·북, 한·중, 미·러 등 양자협의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16일 중국 라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에서 개막한 비핵화 실무회의에서 북핵 시설 불능화의 개념 및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는 주로 북한이 생각하는 핵시설 불능화의 개념 및 방법과 핵 프로그램 신고 방안에 대해 청취하고 다른 참가국들은 의견을 제시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개막에 앞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이 얼마나 속세를 잘해왔는지(핵시설) 신고, 불능화를 위한 기술적 검토도 얼마나 해왔는지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페루 강진

700여명 사망...7000여명 부상

페루에서 15일(이하 현지시간) 리히터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 700여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건물이 붕괴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15일 밤 진도 7.9의 강진이 강타한 페루의 수도 리마 거리의 전신주가 줄줄이 쓰러져 있다. 이 지진으로 최소 700여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건물이 붕괴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8월 1일 핵심요약정리 + 단원문제풀이 첫진도 개강 주택관리사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문제풀이 실전(동형)모의고사문제풀이(특수프린트물) 개강 9월 3일(주,야) www.gjserom.com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7·9 급 공무원 대특강 일세무직 2700명 공채 9월 6일 시행(1200명 포진) (사상초우)

김영면임 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여름방학 편입대특강 개강 8월 1일